

큐열·브루셀라증 예방법

1 개인 보호구 착용

분만·유산·사산 가축, 감염된 동물의 혈액·대소변·양수·태반 등을 다루는 작업을 할 경우,

- ▶ 반드시 보호장갑, 마스크(N95 또는 방역작업용), 방수용 앞치마, 장화, 고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기

2 개인위생 철저

동물과 관련 작업을 한 이후,

- ▶ 의복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샤워하기
- ▶ 식사 전, 흡연 전에 손 깨끗이 잘 씻기
- ▶ 임신, 면역저하, 심장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출산과정에 참여하지 않기

3 청소 및 소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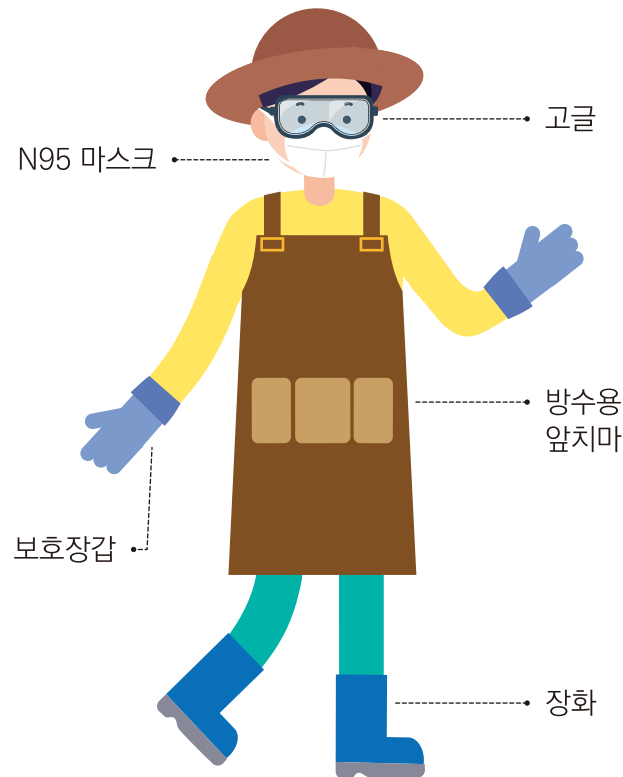
작업장은 작업 종료 후,

- ▶ 청소 및 소독 실시하기
- ▶ 유산동물의 부산물은 방수팩 등에 담아 안전하게 처리하기
- ▶ 에어로졸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,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동물의 배설물을 옮기거나 청소하지 않기

4 안전한 식품섭취

- ▶ 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살균된 제품 섭취
- ▶ 육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기

개인보호구 착용



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

고위험군*에서 큐열 및 브루셀라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작업이나 최근 활동, 건강상태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해 주세요.

* 축산업종사자, 수의사, 인공수정사, 도축검사원, 도축장종사자, 동물관련종사자, 축산물가공업자 등

큐열·브루셀라증 예방수칙

이렇게!



인수공통감염병

➔ 인수공통감염병(人獸共通感染症)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

- **큐열**: 큐열균(*Coxiella burnetii*)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
- **브루셀라증**: 브루셀라균(*Brucella* spp.)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

* 큐열·브루셀라증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

큐열·브루셀라증 감염경로

- ➔ **직접접촉**: 감염된 가축의 대·소변, 출산 부산물(양수 및 태반 등), 유즙, 혈액 등이 피부 상처나 결막 등에 직접 노출
- ➔ **흡입전파**: 병원체에 오염된 먼지의 흡입
- ➔ **식품섭취**: 살균처리 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, 덜 익힌 육류 섭취
- ➔ **기타경로**: 성 접촉, 수혈, 골수이식 등에 의한 병원체 전파

큐열·브루셀라증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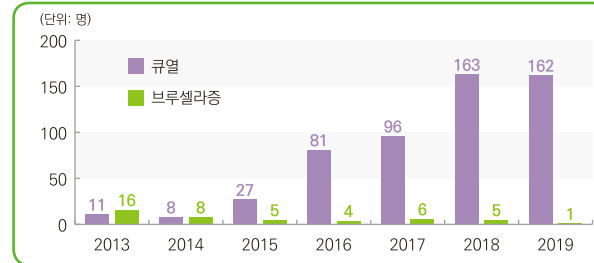
- ➔ **혈청학적 진단**: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모두 필요
* 증상발생 후 7~15일이 지나고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 보유 여부 확인

큐열·브루셀라증 치료

- ➔ 일반적으로 급성큐열은 2주간, 브루셀라증은 6주간 항생제 치료 실시
* 큐열 무증상자 및 증상이 호전된 경우 반드시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음

큐열·브루셀라증

사람 발생 현황(2013~2019)



*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자료

큐열 증상

- ➔ **무증상**: 감염자의 약 60%
- ➔ **급성증상**: 노출 후 2~3주 내에 감기유사증상
급성 큐열의 5명 중 1명은 만성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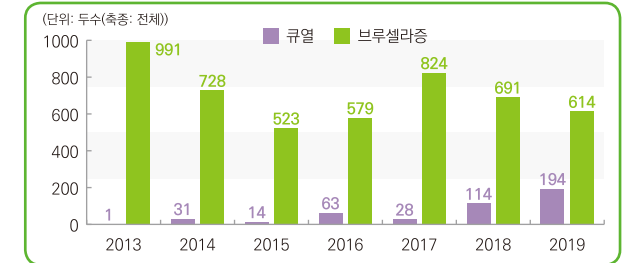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급성 큐열 역학조사 결과, 발열(89%), 오한(56%), 두통(33%), 피로(27%), 근육통 및 식욕부진(각 25%) 등으로 많았으며, 이외 폐렴, 간염, 관절통, 체중감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

- ➔ **만성증상**: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, 심내막염, 중추신경계 합병증 발생 가능

큐열 혈청유병률 조사 결과

- ➔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종사자 대상 혈청유병률 조사 결과, 2014년 3.5%에서 2019년 7.9%로 증가추세
- ➔ 국내 연구 결과(2014~2016), 염소 혈청유병률은 8.6~15.7%, 흑염소 22.8~30%, 한우 및 젃소는 0.4~10.5%으로 나타남

동물 발생 현황(2013~2019)



*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자료

브루셀라증 증상

- ➔ **급성증상**: 노출 후 평균 2~4주에 발열, 오한,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남

우리나라 브루셀라증 역학조사 결과, 발열(64%), 오한(38%), 피로감(31%), 근육통(30%), 발한 및 두통(17.4%), 요통(12.9%) 등으로 많았으며, 그 외 체중저하, 식욕부진, 관절통 등이 나타남

- ➔ **만성증상**: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며, 척추염(8.3%), 대동맥류(2.27%)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

큐열·브루셀라증 감염 위험요인

- ➔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력이나 감염동물·감염된 축산물 접촉
* 큐열은 염소와 소, 브루셀라증은 소가 주요 감염원임
- ➔ 살균되지 않은 우유, 익히지 않은 육류 섭취
- ➔ 보호구 미착용 또는 부적절 착용, 위생수칙 미준수
- ➔ 임산부, 암환자, 심장질환자 및 면역억제자 등은 감염시 만성큐열에 대한 위험도 증가

고위험 직업군에서 큐열 및 브루셀라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작업이나 최근 활동, 건강상태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해 주세요.

